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11호

체육시민연대

▷ 2021.04.07.

논평_1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의
대학스포츠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성명서_1 스포츠 학폭 논란, 2차·3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춰라!!

▷ 2021.04.09.

성명서_2 인준 거부당한 원조 갑질 '최철원'은 법정 소송 즉각 철회하고
아이스하키 협회장 사퇴하라!!

『 도쿄올림픽 』

“코로나, 선수보호...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남북 스포츠외교 난항”

『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 창간...매달 발간”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의 대학스포츠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의 대학스포츠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21년 4월 6일)는 대학스포츠가 변해야 할 곳을 짚어내고 있다.

대학스포츠에서 폭력적 통제를 비롯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려할만하다.

대한체육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스포츠 인권 지킴이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각 대학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대로 교육부와 문체부는 스포츠인권 보호와 예방,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스포츠가 인권친화적 구조와 문화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가 권고로 그치지 않고 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21.04.07.

체육시민연대

스포츠 학폭 논란, 2차·3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춰라!!

“반성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돌연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사람으로서의 예의조차 없는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

본인들이 했던 사과문을 반드시 되새기길 바란다.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에게 상처를 줬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재영 사과문)

“피해자들이 가진 트라우마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다영 사과문)

단순히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보여 주기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였다는 것인가?!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다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2차, 3차 가해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본인들은 가해자였기에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과거의 추억소환을 해보기를 바란다.

하나같이 똑같은 가해자들의 변명 같은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하나하나의 기억이 뼈마디를 후벼 파는 아린 고통으로 기억하고 살았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을 부추기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계를 스스로 모욕하는 행위이다.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계의 폭력에 손가락질을 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선수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배경을 권력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위는 결코 치기어린 장난이 아니었고 그것은 분명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였다.

구조적인 문제와 그 당시의 국가적 상황, 민심이, 지금과 같이 스포츠인권이 깊이 있게 대두되어 실행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바로 꼭 스포츠계가 인권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에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뉘우치고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더 이상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향한 고소진행을 멈춰야 한다. 현재의 모습까지 성장하면서 겪었을 피해자들의 고통에 다시 폭력하는 행위이고 입을 다물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차, 3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춰라!!

2021.04.07.

체육시민연대

인준 거부당한 원조 갑질 '최철원'은 법정 소송 즉각 철회하고 아이스하키협회장 사퇴하라!!

체육시민연대는 작년 12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맷값폭행'을 일으켜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페어플레이를 생명으로 하는 체육단체장이 되려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 정치권에서도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는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한체육회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최철원 회장 후보의 인준을 거부했다. 그런데 최철원 회장 후보가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돈이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아이스하키협회장 직을 쟁취하기 위해 법대로 소송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다른 단체도 아닌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를 이끌 수장에 국민 모두가 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앉히려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2020년기준 아이스하키연맹에 소속된 선수등록현황을 보면 13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를 차지하고 있고, 16세 이하(16.4%), 19세 이하(4.6%), 대학교(4.3%) 실업팀(3.6%)이다. 이처럼 96% 이상이 학생 선수들이다. 이들이 회장기 대회에 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장으로부터 과연 뭘 배울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무슨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윤리 의식밖에 더 배울까?

물론,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아이스하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회장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최철원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전용 시설 확충, 클럽팀 운영 및 리그 운영, 실업팀 창단, 유소년 아이스하키 발전 및 엘리트 학교 지원 등을 현장의 아이스하키인들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최철원 대표가 정말 아이스하키를 위한다면 본인이 직접 회장으로 나서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정적 후원만 하면 될 일이다.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를 존중한다. 만약 최철원 대표가 회장이 된다면 이는 아이스하키 협회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 단체장이 선임될 때에도 '사회적 물의' 따위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최철원 대표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 즉각 중지하고 사퇴하라!

2021.04.09.

체육시민연대

"코로나, 선수보호"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남북 스포츠외교 난항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전격 선언했다.

북한은 5일 체육성 홈페이지 '조선체육'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화상 방식으로 열린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남북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외교를 통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다시 마련하려던 정부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뉴욕유엔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의사를 직접 밝히며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과 협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과 대화의 창이 닫힐 때마다 스포츠는 꼭 닫힌 창을 여는 역할을 해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 개회식 공동입장 등을 성사시킨 바 있다. IOC도 2년 전인 2019년 3월 집행위원회를 통해 도쿄올림픽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농구와 여자하키, 유도(혼성단체전),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며 남북의 화합을 지지했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하키 등 일부 종목은 올림픽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고, 종목 특성상 남북이 모두 강한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만 단일팀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 북한이 전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를 코로나19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의 국내외 이동도 금지했다.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향후 남북 대화, 스포츠 외교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이 함께 목표 삼은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도 이미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월 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 개최지로 낙점하면서 공동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멀어졌다. 서울시가 지난 1일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의 비전과 컨셉트를 담은 유치제안서를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제출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지만 공동올림픽 유치의 파트너인 북한의 비협조와 소통 단절은 가장 큰 악재다.

한편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 직후 대한체육회는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2020 조직위원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북한의 불참 선언을 코로나 위험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보로 보는 분위기다. 조직위 관계자는 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기 힘들다"면서도 "정치적 이유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ky4us@sportschosun.com

문체부,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 창간...매달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를 창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별 정책, 해외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이다.

▲ 해외 스포츠산업 현황 ▲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 해외 스포츠 기업 ▲ 통계로 보는 해외 스포츠산업
▲ 해외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창간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프로스포츠도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집에서 운동하기(홈트레이닝) 등 비대면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다뤘다.

매달 초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문체부(www.msc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ycle@yna.co.kr

주간 스포츠 소식

문체부,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실현 위한 의지 모은다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408507521>

‘스포츠마케팅 국무총리상’ 수상한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5276&ref=A>

대한체육회, 스포츠 유망주 제1호 후원 협약식 개최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410502987>

스포츠로 번진 미중 갈등...올림픽의 정치학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8030&ref=A>

[거꾸로 읽는 스포츠] 스포츠 민족주의 '국뽕', 성적 지상주의 퇴색

<https://news.imaeil.com/InnerColumn/2021040418293716694>

인천시체육회, 전문강사 활용해 12일부터 연말까지 스포츠인권교육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652>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사업 2차 공모 심의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80>

"놀면서 체력 증진"...폐교 활용한 학생스포츠센터 첫 개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101200061?input=1195m>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091042271707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화순군,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본격 육성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40814401089008>

[코로나19] 김해서부스포츠센터, 이용객 확진 판정에 선제적 대응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7986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